

Soopfolk

magazine

 www.forest.go.kr

 www.facebook.com/koreasouthforest



내 곁에 있는 숲, 내 삶을 바꾸는 숲!

안녕하십니까? 남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입니다.

어느덧 지루한 겨울이 지나고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1967년 남부지방산림청 개청 이래 지난 50여 년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구슬땀으로 이뤄낸 우수한 산림자원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와 백두대간 등 천혜의 산림자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상에 내놓는 「Soopfolk」는 '숲(soop)'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느리고 여유로운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Kinfolk'의 합성어로, 산림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혜택을 때로는 편안하게! 때로는 즐겁게! 국민들이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 정보를 제공하는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으로 국민과 더욱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

Soopfolk

2018 남부지방산림청 기관소식지



Contents

2018 April

남부지방산림청 「Soopfolk」 2018년 4월 봄호 기관소식지

발간사 | 02



멋있는 숲 | 04

솔향기가 매력적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길'(1구간 탐방)

편안한 숲 | 12

숲이 선물하는 자연치유 '국립산림치유원'



20 | 재밌는 숲

재미가 팡팡 터지는
'까투리유아숲체험원'



26 | 맛있는 숲

인삼맛이 나는 물이 있다구요??



32 | 알리는 글

산림청 4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
'울릉도 성인봉·나리봉'



1

솔향기가 매력적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길

글 | 남시언(여행작가, 파워블로거), 사진 | 남부지방산림청, 남시언 제공

인간이 가진 끝없는 욕망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마음가짐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강한 흥미를 느끼지만 가진 것의 소중함은 쉽게 잊는다. 익숙해지면 흥미를 잃기 마련이다. 오늘날 여행은 자유여행이나 캠핑, 트레킹처럼 자유로움과 자연을 함께 느끼는 체험형이 인기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고 원한다면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제한된 인원만 탐방할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의 여행지가 있다. 바로 울진의 「금강소나무숲길」이다.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경험을 의미하므로 여행객들과 등산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금강소나무숲길

금강소나무숲길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사전 예약자에 한해 안내인 동행으로 탐방이 가능한 곳이다. 탐방예약과 가이드를 동반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숲인 금강소나무숲을 보호하는 동시에 동식물의 삶터를 보장해주는 자연친화적 방법이며 오지탐방의 특성상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예약 없이는 탐방할 수 없으며 사전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ljintrail.or.kr/>)에서 할 수 있다.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은 여러 구간으로 나뉜다. 1구간과 3구간, 3-1구간, 4구간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2구간은 단체 탐방객 위주로 예약을 받는다. 5구간은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미비점 등이 보완되면 일반인들도 탐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울진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질 좋은 금강소나무군락지로 유명한 곳. 옛 보부상들이 걸었던 이 공간엔 병풍 같은 금강소나무들이 탐방객을 맞이해준다. 이런 점에서 금강소나무숲길은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길이며 다른 지역의 둘레길이나 올레길 등 평범한 트레킹 코스와 다르다.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금강소나무숲길. 어렵게도 1년 내내 탐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상 및 현지 상황을 기준으로 탐방 기간을 정하는데 2017년 탐방 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고 2018년도 탐방 기간은 4월 20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한다.

1. 금강소나무숲 길
2. 출입통제구역



2

금강소나무숲길 1구간과 계곡

금강소나무숲길 1구간은 옛 보부상들이 내륙지방(봉화, 영주, 안동 등)으로 행상을 떠날 때 넘나들던 열두 고개(십이령) 중 네 개의 고개(바릿재, 샛재, 너삼발재, 저진터재)가 있는 구간이다. 총 길이 13.5km이며 난이도는 중상.

길이가 다소 길고 고개마다 오르막이 있어서 체력 안배가 필요한 코스다. 산림유전자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인 산양(야생동물) 서식지가 포함돼 있어 볼거리가 풍성하다.



3



4

본격적인 트레킹은 집결지(두천1리)에서 만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산행을 하는 테다 길이 하나뿐이라서 중간에 되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므로 물과 에너지바, 사탕 등 간단한 먹거리와 음료를 챙겨가면 도움이 된다.

휴식시간 포함 약 7시간을 걸어야 하며 도착지는 소광2리 금강송펜션 앞. 이곳은 금강소나무숲길 3구간 출발지점이기도 해서 다른 텁방객들을 만날 수도 있다. 3구간 텁방객들과 담소를 나누며 금강소나무숲길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된다.

1구간 전체 코스는 내성행상불망비 → 바릿재 → 장평 → 찬물내기 → 샛재 → 대광천 → 저진터재 → 소광2리로 이어진다. 옛날 보부상이 넘나들던, 울진 십이령 보부상 길을 복원한 길이다. 문화재 자료 310호인 울진 내성행상 불망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산행이 이어진다. 울진 금강 소나무를 실컷 볼 수 있지만, 오르막 고개가 많아서 땀을 좀 흘릴 각오는 해야 한다.

3km 지점에는 멋진 계곡이 하나 있다.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는데 다들 신발을 벗고 물에 발을 담가 발을 식혀준다. 사람 손길을 타지 않은 곳이라 물이 맑다 못해 투명하게 보인다.

이런 곳에서는 인증사진도 필수!

3. 트레킹에 앞서 몸풀고 있는 등산객들 4. 1구간 내성행상불망비 앞에 등산객들이 모여있다 5. 1구간 대광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6. 1구간 대광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5



6

산행중의 만찬, 그리고 옛주막 자리

황장봉산 동계 표석(조선 시대에 금강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나랏법으로 정한 경계를 나타내는 표석)을 거쳐 찬물내기 쉼터에서 점심을 먹는다. 찬물내기 쉼터는 1구간의 중앙쯤 되는 곳으로 6.5km 부근이다.

점심은 금강소나무숲길 탐방을 예약할 때 함께 예약할 수 있는데 현지 주민들의 비빔밥이 나온다. 가격에 비해 푸짐하게 나오며 맛이 그야말로 꿀맛이다. 산행 중의 만찬.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이 또 없다. 직접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다.

1구간은 휴대전화가 거의 터지지 않으므로 꺼두는 것도 좋다. 디지털 세상에서 멀어진 트레킹.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려놓는 법을 배우며 잠시나마 복잡한 현대인의 생활을 벗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다.

셋째 근처에는 옛 주막 자리가 있다. 과거에 썼던 가마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구경거리가 되며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산적들에 대한 이야기와 오솔길의 유래 등에 대해 서도 들어본다.

마무리 부근의 너삼밭재와 저진터재의 고개는 꽤 힘든 편이지만 이 고개만 넘으면 트레킹은 마무리된다. 소광 2리 도착 후 버스가 출발하기까지는 여유 시간(20분 정도)이 좀 있어서 소광2리에 있는 십이령 주막을 이용할 수 있다.

십이령주막은 현지 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막걸리와 파전, 두부, 도토리묵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7시간의 산행 이후 먹는 파전과 막걸리, 도토리묵은 마쉐린 3스타 레스토랑 부럽지 않다.



7. 1구간 화전민 터 8. 1구간 셋째 조령성황사 9. 십이령 주막에서 판매하는 음식들 10. 십이령 주막 전경



“내려놓는 법을
배우며,
잠시나마 복잡한
현대인의 생활을 벗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탐방의 마지막

탐방객의 마지막 임무는 소광2리 도착지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버스 요금은 현금으로 3천 원을 내야 한다. 버스는 1시간 정도를 달려 출발지에 도착한다. 이때는 다들 피곤했는지 잠을 자는데 불면증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서는 풀어떨어질 것이다. 힘들지만 재미있고 끝난 뒤의 정복감과 '해냈다!'는 뿌듯함을 주는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이다.

11. 멋진계곡



Travel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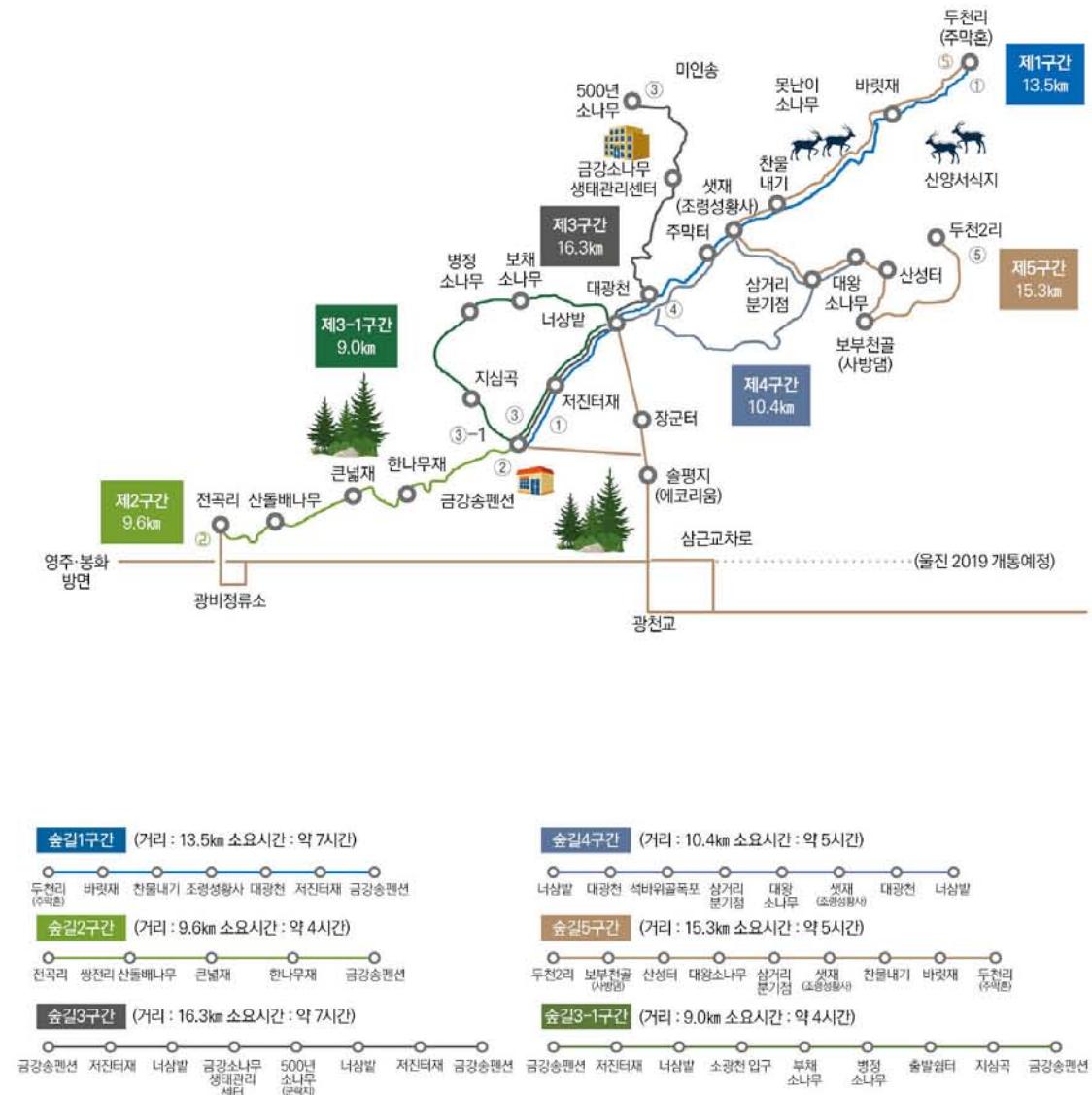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1구간 탐방 준비물

1. 등산복 등 편한 복장(가급적 긴 팔과 긴 바지)
2. 물, 음료, 간식 등
3. 수건
4. 약간의 현금(점심 식사, 십이령 주막 이용, 버스비 등)

여행 정보

주소 :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232번지
(1구간 출발지)
내비게이션 검색 : 주소 검색
전화번호 : 054-781-7118
홈페이지 : <http://www.uljintrail.com>

Travel map



숲이 선물하는 자연치유 ‘국립산림치유원’

글 | 남부지방산림청, 사진 | 국립산림치유원 제공

숲에 가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여유로워지며
위로받는 기분이 든다.

사사삭.. 바람에 잎사귀가 부딪치고
새소리와 물소리가 들려오는 곳...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안정되고 심신이 단련되는 숲은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다.



온전한 휴식을 누리며,

최근 산림이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산림휴양과 치유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빽빽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안에서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떠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국립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에 걸쳐있는 소백산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2,889ha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 산림치유시설'로 단기체류는 물론 장기 숙박형 휴양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치유·교육·레포츠 시설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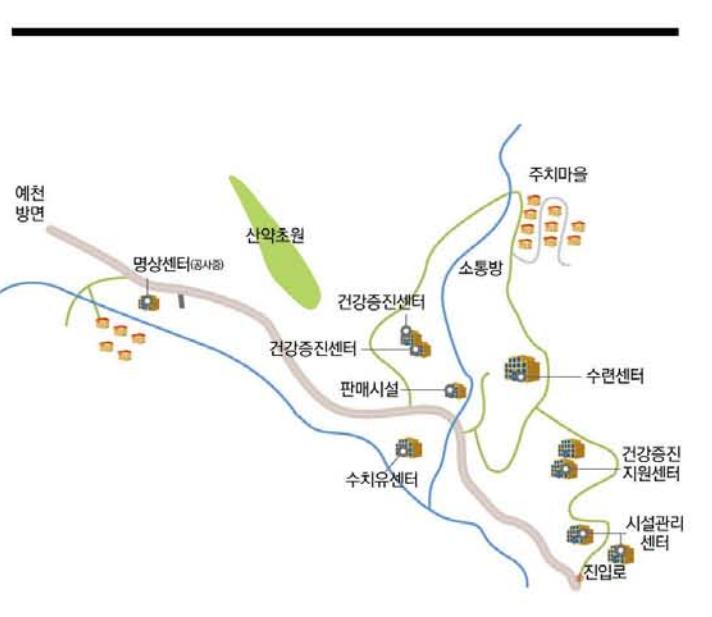
숲이 주는 하나의 힐링

숲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치유인자 즉, 경관, 소리, 향기, 피톤치드, 음이온, 물, 광선 등을 활용해 인간의 신체와 정신적·건강적으로 교감하여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곳이다.

더 나아가 적절한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산림치유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산림치유는 숲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힐링 선물이라 할 수 있다.

크게 영주 '주치골 지구(단기이용자 대상)'와 예천 '문필봉 지구(장기이용자 대상)'로 구분되며 숲치유, 수(水)치유 등 실질적인 치유효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개인형 프로그램과 기업, 기관 및 단체에서 이용 가능한 단체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http://daslim.fowi.or.kr/>)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문의는 국립산림치유원으로 하면 된다.



2. 주치골 지구(영주)



3. 문필봉 지구(예천)

* 주요시설물로는 건강증진센터, 수(水)치유센터, 산림치유문화 센터, 수련센터,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치유 시설과 공간이 있다.



4



5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건강상태 진단과 스트레스 해소 및 피로회복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관련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혈압, 근력, 유연성 등 건강측정과 개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처방받을 수 있다. 그 후 피로해소와 근육이완에 좋은 건식치유, 혈액순환 및 노폐물 배출 촉진을 위한 음파치유, 건식수압 마사지로 부위별 근육피로 해소와 통증 완화를 위한 아쿠아 치유 체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치유할 수 있다.

수(水)치유센터

수(水)치유센터는 베�텔풀 스파, 야외운동 욕장, 족욕장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수류와 수압을 이용한 신체자극과 수중운동으로 근육이완, 혈류자극, 피로해소 등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산림치유원만의 차별화 된 수중테라피를 산속에서 즐기는 공간이다.

다채로운 형태의 치유정원도 만날 수 있다. 향기치료 정원은 다양한 식물의 향기를 이용하여 오감을 자극하고 자연치유력을 향상시킨다. 음이온 치유정원은 신체를 활성화하는 음이온이 풍부한 계곡에 조성되어 스트레스 완화와 심신안정에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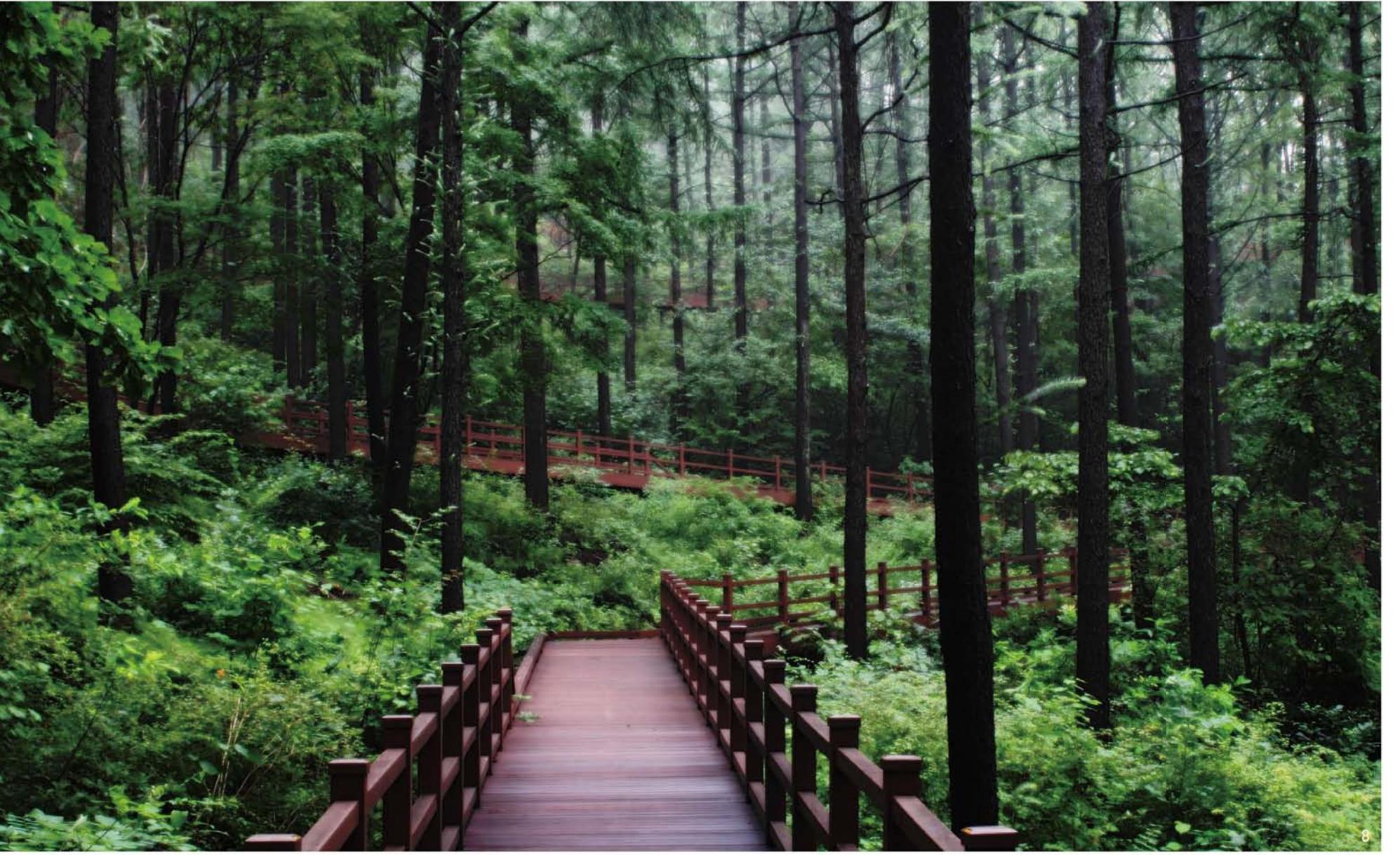


6

6. 수(水)치유센터 수업 전경 7. 산림명상 프로그램 운영



“빡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안에 누리는
온전한 휴식이 있는곳”



8. 마실치유숲길 데크로드

나무가 울창한 숲에 가면 특유의 상쾌한 향이 나는데 이것은 피톤치드라는 성분 때문이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과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인데 이를 마시게 되면 마음의 안정과 쾌적감을 가져오는 산림치유인자로 우리 몸에 아주 이롭다.

하늘을 빽빽이 가린 회색빌딩 숲과 각종 소음, 매연, 건조하고 탁한 실내생활에 지친 마음을 이곳에서 달래보자!

Travel map



Travel tip

당일형

구분	구성	요금	비고
당일형 프로그램	·식사 1식 ·프로그램 4시간	23,000원	1인기준

※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신청 가능

장비체험

구분	구성	요금	비고
건강증진센터 이용권	6종 건강치유장비 체험	15,000원	2시간 기준

※ 매주 월요일, 건강증진센터 및 수(水)치유센터 휴관

단기숙박형

구분	구성	이용료		비고
		주중	주말(상수기)	
힐링숲 (1박2일형)	·숙박 1식	125,000원	144,000원	2인실 2인기준 (최대 4인 숙박)
	·식사 3식	244,000원	271,000원	4인실 4인기준 (최대 8인숙박)
	·프로그램 5시간	358,000원	398,000원	6인실 6인기준 (최대 11인숙박)

구분	구성	이용료		비고
		주중	주말(상수기)	
힐링숲 (2박3일형)	·숙박 2식	250,000원	298,000원	2인실 2인기준 (최대 4인 숙박)
	·식사 6식	489,000원	543,000원	4인실 4인기준 (최대 8인숙박)
	·프로그램 10시간	716,000원	796,000원	6인실 6인기준 (최대 11인숙박)

장기체류형

구분	이용료	비고
숲속 힐링스테이 (1주)	384,000원	1인 기준
	630,000원	2인 기준
숲속 힐링스테이 (2주)	812,000원	1인 기준
	1,325,000원	2인 기준
숲속 힐링스테이 (3주)	1,240,000원	1인 기준
	2,020,000원	2인 기준
숲속 힐링스테이 (4주)	1,668,000원	1인 기준
	2,710,000원	2인 기준

재미가 팡팡 터지는 까투리유아숲체험원

글·사진 | 남부지방산림청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다.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은 늘 그렇듯 활기찬 분위기다.
그래서인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봄 향기를 가득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산이 아닐까?

온전한 휴식을 누리며,
연한 어린잎과 꽃망울을 바라보자면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
이 떠오른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달리 흙을 밟으
며 맘껏 뛰어 놀 공간이 부족하다. 아이들에겐 안전하고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숲은 세상에서 가장 홀륭한 교실이자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연을 벗하며 자라길
바란다면 인공적인 놀이시설이 아닌 자연에서 뛰어놀게
해줘야 한다. 흙을 밟고 꽃향기를 맡고 나무의 투박한 온기
를 느낄 수 있는 그 곳! 숲 속 놀이터!

2012년부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아산림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숲 교육이 유아의 학습능력, 환경감수성, 면연력, 사회성 발달과 자아개념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Information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 하는 시설 (산림교육법 제12조)

그런 가운데 지난해 안동에는 “까투리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었다.

엄마까투리

먼저 까투리 유아숲체험원 소개에 앞서 경북 안동지역의 공식 홍보 대사인 「엄마 까투리」에 대해 알아보자.

엄마 까투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화작가 故권정생 선생이 쓴 슬프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에 김세현 화가의 동양화적인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담아낸 그림책이다. 산불속에서도 어린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엄마까투리를 통해 끝을 알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까투리 유아숲체험원은 故권정생 선생의 생전 거주지인 경북 안동시 일직면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나무를 비롯해 이곳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을,
책이나 글로 배우는것이 아닌
살아 숨쉬는 자연을 보고 듣고 느끼는 공간



총 면적이 2.3ha에 이르는 까투리 유아숲체험원에는 자작나무숲과 스트로브잣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어 나무를 비롯해 이곳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을 아이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다. 딱딱한 블록 대신 부드러운 모래를 이용해 흙놀이를 즐기고, 나무로 만든 인디언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만의 아지트를 꾸밀 수도 있다.

도시 놀이터에서 보던 놀이시설도 까투리 유아숲체험원에서는 모두 다른 모습이다. 공중에 매달린 나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과 줄지어 터널을 엉금엉금 기어서 통과해본다. 책이나 글로 배우는 자연이 아닌 살아 숨 쉬는 자연을 보고 듣고 느끼는 공간이다.

2. 유아숲체험원 종합안내판 3. 까투리유아숲체험원 입구 전경 4. 스트로브잣나무 숲 전경

5



5. 뱃줄놀이터 및 둉지모임터 전경 6. 공중악기 전경 7. 모래놀이터 및 인디언집짓기 전경 8. 터널지나기 전경 9. 둉지모임터 10. 인디언집에서 바라본 천장 모습



푸른 숲, 자유롭게 즐기는 체험

까투리유아숲체험원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참여시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매일형(동일 유아가 매일 연속적인 숲체험)과 정기형(동일 유아가 주 1회 정기적인 숲체험)으로 나뉜다.

현재 숲체험 프로그램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단체신청만 가능하며 예약 후 상주하고 있는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계절 별로 다양한 숲교육을 받게 된다.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찾을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비용 없이 평일 또는 주말에 방문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가오는 봄 아이들과 함께 푸른 숲에서 자연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 경북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산103 3월~11월
- 6~7세 유아 / 회당 20명 내외
- (오전)10:00~12:00 / (오후)13:00~15:00
- 1일 4회 운영(오전·오후 각 2회)
-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복지팀 (054-630-4030~4)

Travel tip

월별 운영 프로그램

월	유아숲체험원주제	연계활동
3월	숲속친구와 인사해요	낙엽인형 만들기 봄의 나무 관찰하기
4월	따뜻한 봄의 풍경	애벌레야 넌 커서 뭐가 될래?
5월	숲이 주는 고마운 선물	거꾸로 보는 세상 꽃반지 만들기 목공예체험
6월	숲에서 만난 친구들	거미야 놀자
7월	여름 숲속의 놀이터	나무야 고마워
8월	소리가 있는 여름숲	매미야 반가워
9월	가을을 담은 숲	솔방울 던지기
10월	오색빛깔 숲속으로	나뭇잎아 안녕!
11월	겨울을 준비해요	동물들에게 먹이주기

인삼맛이 나는 물이 있다구요?

글·사진 | 남부지방산림청

매년 봄이 되면 많은 이들이 찾는 특별한 물이 있다. 바로 고로쇠 수액이다.
단풍나무의 일종인 고로쇠나무에 상처를 내어 한 방울 한 방울 정성스레
채취한 바로 그 물!

고로쇠 수액의 어원은 통일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말기 고승
도선국사가 백운사에서 가부좌를 튼 채 도를 닦고 득도를 한 후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펴지질 않아 나무를 잡고 일어서다 부러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수액을 받아먹고 무릎을 펴다는 데서 유래됐다. 이후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뜻의 골리수(骨利樹)라는 이름이 붙었다.



벼에 이로운 물 ‘골리수(骨利水): 고로쇠 수액’

고로쇠 수액은 오래 전부터 민간요법에 사용됐다.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전쟁이 한창이던 지리산, 양국의 군사들이 이 격렬한 전투를 벌인 뒤 파김치가 되어 타는 갈증으로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주위에는 마실만한 물이 없었는데 화살이 박힌 나무에서 물이 뚝뚝 흘렀다. 병사들은 입을 대고 그걸 마셨고, 갈증은 말끔히 해소되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고로쇠 수액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고로쇠나무는 추운 날씨에는 물을 비축하고 기온이 올라가면 가지로 보내는데, 이때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 경칩(驚蟄)을 전후로 약 보름간 채취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2월 중순에 시작하여 3월 중순경에 마무리된다. 수액을 채취할 때에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 수액을 받는데, 수액을 채취할 때 생긴 상처는 다행히도 수액을 다 채취한 다음에는 자가융합을 한다고 한다. 채취할 수 있는 양은 기후조건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채취 지역과 시기에 따라 맛이 다르다.



인삼 향, 좋은 효능을 고루 갖춘 수액

특히 울릉도의 우산고로쇠 수액은 육지의 수액과 비교해 깨끗하고 청정하며 깔끔한 맛과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우산고로쇠는 전국 산야의 고로쇠나무 가운데 순수 국산유전자를 지닌 국내 유일 특산수종으로 해발 3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며 울릉도의 옛 지명인 우산국의 이름을 붙여 우산고로쇠라 부른다. 또한 칼슘(Ca), 칼륨(K)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며 사포닌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인삼 향이 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로쇠 수액은 물보다 흡수가 빠르고 강한 이뇨작용으로 노폐물 제거에 좋으며 위장병, 고혈압, 피부미용, 변비, 산후통, 비뇨기 계통 질환 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달한 맛의 고로쇠는 음식을 만들 때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어서 천연 조미료 역할도 한다.

우산고로쇠 수액 채취와 보관

산림청은 울릉군산림조합과 2010년도에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고 고로쇠수액 채취에 대한 양여를 승인했다. 이에 울릉군산림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채취증을 발급해 주고 채취를 허가해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채취한 고로쇠 수액은 울릉군산림조합 가공·유통 센터에서 3회 이상의 정제작업을 거쳐 깨끗한 용기에 담아 출하 전까지 저온저장고에 보관한다. 또한 미세 먼지, 나뭇조각, 각종 세균에 노출된 고로쇠수액은 정제 및 비가열 살균을 거쳐 건강한 우산고로쇠 수액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로쇠 수액은 자연 그대로의 물이기 때문에 정해진 유통기한은 따로 없다. 하지만 상온에서 보관하면 금방 상해 버리기 때문에 냉장보관은 필수다. 또한 생수 마시듯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온음료처럼 당도가 있어서 목 넘김도 아주 좋은 편이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고로쇠 수액을 마시는 동안은 되도록 커피나 음료수, 술 등을 자제하고 수액만 섭취하여 최대의 효과를 노려보자.

Information

우산고로쇠 수액 구매를 원하는 이들은 울릉군 산림조합 쇼핑몰(<http://ulleungnfcf.or.kr/>) 또는 산림조합 쇼핑몰 푸른장터(<http://www.sanrim.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별도 문의사항 ☎ (054-197-2550, 2560)으로 연락하면 된다.



3. 울릉도 우산고로쇠 채취 모습 4-6. 우산고로쇠 가공·생산 모습



명품숲 이야기

산림청, 4월의 국유림 명품숲 “울릉도 성인봉 · 나리봉” 발표

-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 '02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4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울릉도 성인봉·나리봉을 선정·발표했다.

울릉도 성인봉·나리봉은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화산지형으로 울릉도의 중앙에 솟아 있는 성인봉은 해발 984m의 최고봉으로서 울릉도 모든 하천수원의 발원지이며 울창한 원시림이 잘 보존되고 있는 국유림 명품숲이다.

나리봉은 서쪽으로는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지를 이룬 나리분지와 연결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나리령 능선과 말잔등을 지나 성인봉과 이어져 있다.

울릉도 성인봉·나리봉은 산림청이 선정한 명품숲 중 보전·연구형 유형에 해당되며, '02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성인봉과 나리봉 일대는 우산고로쇠를 비롯해 회솔, 솔송, 너도밤나무, 섬잣나무, 섬피나무 등 희귀식물이 집단으로 자생하고 있어 2002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림(ha)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핵심 산림보호구역으로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시림, 식물 자생지 등의 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96%가 국유림)

또한 원시림과 나리동의 울릉국화·섬백리향의 군락은 천연기념물 제189호와 제52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특히 성인봉 등산로에서는 숲길체험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어 숲길안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으며 4월 울릉도에서는 부지깽이나물 등 봄나물의 특별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

국유림 명품숲은 2017년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여 그 동안 잘 가꾸어온 국유림이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이자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명소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선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20개소가 발표되었다.

※ 국유림 명품숲 : 경영·경관형 10개소, 보전·연구형 10개소

올해도 10개소의 국유림 명품숲이 추가 선정·발표될 계획이며, 매달 두 번째 주에는 이달의 명품숲이 발표된다.



탐방 안내

Soopfolk에 관한 안내문의는
'남부지방산림청'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Q1 울릉도 성인봉·나리봉의 탐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054-791-1252)에 문의



공정한
산림청이
청렴문화! 앞장서겠습니다!



[일자리 및 창업 지원]

◆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 완화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 가능(단,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재배의 경우에 한함)

*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17.6.2.개정, '17.6.3.시행)

◆ 독학사 인정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 전문 관리인의 등록자격에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전공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동등한 경력을 보유하면 자격 인정

*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7.8.16.개정·시행)

[국민·기업 불편 해소]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확대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출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근거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7.5.29.개정, '17.6.3.시행)

◆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개선

*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을 15 → 10일 이내로 단축
* 근거법령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17.8.22.개정·시행)

Soopfolk

2018 남부지방산림청 기관소식지

발행일

2018년 4월
남부지방산림청

디자인

금강인쇄사
www.forest.go.kr

기획/편집
남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과